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2024. 1. 23.(화) 15:20 배포/즉시 보도
문의	연구처 연구정책과
	담당: 정창원 전화: 880-5196, 이메일: dbjim0223@snu.ac.kr

배포일: 2024.1.23.(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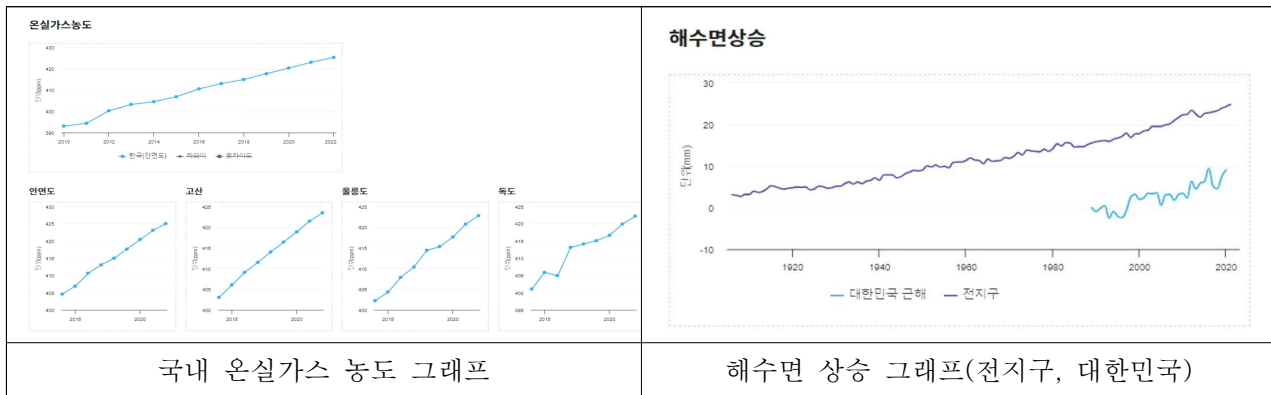
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확인, 네이버 검색으로
더 편리해지고 탄소중립포인트, 네이버페이로 받는다
서울대-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-환경부-네이버, 탄소중립·녹색성장
정보제공 및 국민소통 협력 업무협약

- 앞으로 기후변화,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·녹색성장 정보를 네이버에서 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- 대통령 직속 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 (공동위원장: 한덕수 국무총리,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, 이하 ‘탄녹위’)와 환경부(장관 한화진), 서울대학교(총장 유흥림), (주)네이버(대외·ESG 정책 대표 채선주)는 2024년 1월 23일(화) 네이버 1784(성남시 분당구 소재)에서 탄소중립·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협약식에는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, 한화진 장관, 유흥림 총장, 채선주 네이버 대외·ESG 정책 대표가 참석했다.
-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△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·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△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‘탄소중립포인트 (www.cpoint.or.kr/netzero)’ 확산 △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

램 공동 운영 △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.

- 먼저 환경부와 네이버는 국민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·녹색성장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- 네이버 검색화면에서 기후변화,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(www.gihoo.or.kr/netzero)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지표 등의 정보를 연동해 국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네이버가 협력할 계획이다.

〈 탄소중립 정책포털 제공 정보 화면(예시)〉



※ 환경부 제공

- 또한 네이버와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로도 간편로그인을 적용하고, 네이버페이로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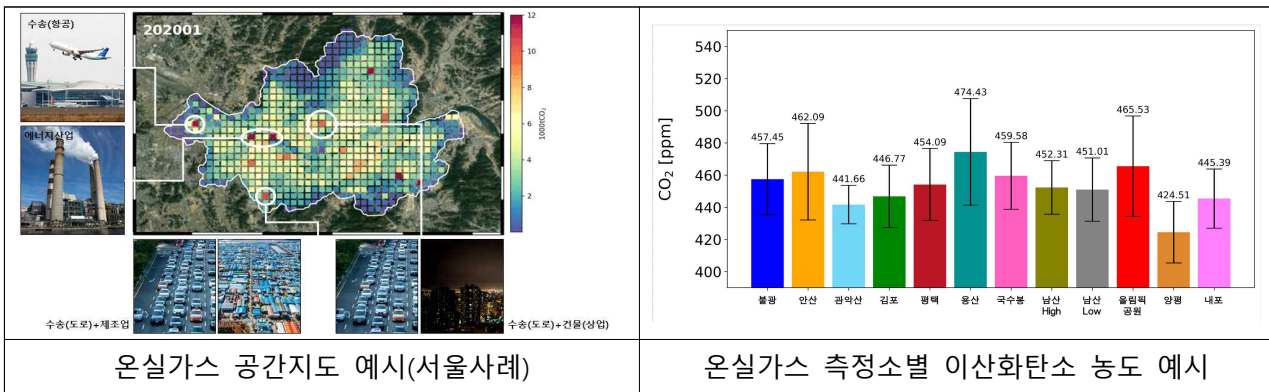
* 기존에는 계좌 지급, 에코머니포인트 지급 등 2가지로만 운영해 왔음

-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(센터장 정수종 교수), 환경부, 네이버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, 이를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

계획이다.

- 이번 협약식 이후 서울대, 환경부, 네이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정보의 표출 방식 및 공개 시점 등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.

<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정보(이미지 예시)>



※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제공

- 서울대학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할 탄소 배출 및 흡수량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.

□ 탄녹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네이버, 환경부와 함께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.

- 탄녹위와 네이버는 '23년 어스아워(Earth Hour,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), '22년 세계 철새의 날(매년 5월과 10월 둘째 주 토요일)에도 홍보 후원 협약을 통해 '네이버 스페셜 로고 프로젝트*' 를 진행하는 등 국민계 기후 변화 및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리기 위해 협력한 바 있다.

* 특정 기념일에 PC 및 모바일 메인화면의 NAVER 로고를 변경하여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

-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탄녹위와 환경부가 지구의 날(4.22) 및 제16회

기후변화주간(‘24.4.22~4.28), 환경의 날(6.5) 등 기후변화 관련 주요 기념일에 맞춰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미션을 제안하고, 캠페인 참여자들이 실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면 탄녹위가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친환경 상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을 마련한다.

- 유흥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“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.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구축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연구역량을 바탕으로,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국립대의 책무를 다할 것”이며 “탄소중립은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, 탄녹위와 환경부, 서울대가 협력하여 만들어 낸 정보가 네이버를 통해 국민에게 잘 전달된다면 우리 국민이 탄소중립의 실천 주체가 될 것이다” 라고 말했다.
-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“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” 며 “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포털 누리집 사용률이 높은 만큼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” 하다고 강조했다.
-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오늘 협약은 민·관·학이 협력하여 기후변화·탄소중립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노출되게 하여, 많은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 며, “탄소중립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도 지급토록 하면 청년세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” 이라고 강조했다.
- 채선주 네이버 대외·ESG 정책 대표는 “검색 등 네이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기후변화·탄소중립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” 이라며 “글로벌 인터넷 기업

이자 ESG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가치가 다양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